



한들한들 억새숲길 노래가 절로~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를 이틀 앞둔 5일 오후 광주 서구 영산강변에서 서구청 공무원들이 억새숲을 둘러보며 손을 흔들고 있다.

니명주기자mjna@kwangju.co.kr

### ‘곰솔림’ 보전 나선다

#### 전남 5곳 종합 방제대상지 선정

전남도가 전남 주요 해안을 감싸고 있는 곰솔(줄기와 가지가 검은색을 띠는 소나무)숲의 보전을 위해 종합 방제에 나선다. 산림청의 2023년 해안가 우량 곰솔림 종합방제사업대상지로 우선 안도 신지명사십리해변, 신안 대광해변, 완도 금일읍 일원, 고흥 대전해수욕장, 진도 임회지구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숲 5개 지역 21.8ha를 선정했다.

이들 5곳에 대해서는 국비 6억원 등을 투자해 병해충 방제, 토양의 물리·화학적 개선, 나무의 자라나는 힘 회복 등 곰솔림 경관보전 및 생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방풍 효과는 해안 숲의 폭과 밀도에 비례한다. 나무 간격이 고르게 분포한 방풍림의 경우 수고에 비해 감풍 범위가 증가하고, 감풍범위는 일반적으로 수고의 6~30배에 이른다.

특히 해안가 우량 곰솔림은 나무의 줄기, 가지, 잎 등이 풍속을 줄여 조풍으로 인한 간척농지 피해를 줄이고 해일과 풍랑 등으로부터 해안마을을 보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조성된 해안가 우량 곰솔림 중 진도 관매도 해안숲, 여수 방죽포 해변 해안숲, 신안 증도 우전해변 한반도 해안숲 등은 방풍림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문미란 전남도 산림보전과장은 “재해로부터 안전한 숲, 도민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행복을 주는 숲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해일로부터 해안가 마을과 농경지를 지키고 아름다운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올해까지 70억 원을 들여 60개소, 415ha의 해안가 곰솔림 종합 방제를 추진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에도 수수료 낮은 ‘공공배달앱’ 있습니다

#### 올 7월 14일 출시 가맹점 4144곳...한 곳당 두 달 간 평균 8건 주문 시장 점유율 낮아 실효성 없어...상인·소비자 ‘원인’ 적극 홍보 필요

공공배달앱을 사용한 지 두 달 동안 평균 8건의 주문을 받았다면 성공적으로 운영중인 걸까.

전남도가 출시한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이 두 달 넘도록 지역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지 못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요기요 등 인기 배달앱에 비해 월등히 낮은 공공배달앱 인지도를 높일 홍보·마케팅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의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먹개비)은 지난 7월 14일 출시 이후 지난 9월 25일까지 두 달여간 4144개 업체를 가맹점으로 유치하고, 3만 5177건의 주문을 받아 7억6660만 원의 누적 매출액을 올렸다.

산술적으로 보면 가맹점 한 곳 당 두 달 간 8건(8.48건)의 주문을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맹점 한 곳당 하루 한 건씩 주문을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단순 수치로만 계산하면 50일 넘게 주문이 전혀 없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주점 매출의 69.3%가 배달앱 주문에서 생긴다’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난해 ‘배달앱 이용 실태 조사’ 결과를 고려하면 공공배달앱 주문 만으로는 영입이 힘든 실정이다.

나주지역 한 음식점 업주는 “하루 평균 들어오는 배달 주문 20여 건 대부분이 배민·요기요”라며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배달앱 가맹점으로 등록했지만 소비자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겠냐”고 했다. 배민, 요기요 등 민간 앱과는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시장 점유율이 낮다 보니, 수수료가 비싸더라도 소비자들의 배달 주문이 많은 민간배달앱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자영업자들 하소연이다.

1109개가 공공배달앱 가맹점으로 등록, 가장 많은 업체를 유치한 여수의 경우 두 달 간 2만805건의 호출 주문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한 곳이 두 달 간 받은 평균 주문 건수는 18건(18.8건) 수준이다. 429개 가맹점을 유치한 목포에서는 같은 기간 1401건(한 곳 당 주문건수 3.3건)의 주문을 받는데 그쳤다. 970개가 가맹점 등록을 한 순천에서는 두 달 간 3798건의 호출 주문이 올려 업체 당 3.9건의 주문을 받았다는 계산이 나왔다. 427개의 가맹점이 등록한 무안에서는 2950건의 주문이 이뤄졌다.

나주의 경우 두 달 간 35개 업체가 가맹점으로 등록했는데, 이 기간 2029건의 주문 호출이 올랐다. 통계로만 보면 두 달 간 업체 한 곳당 58건의 주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루 한 개별로 주문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 공공배달앱이 가장 활성화된 곳으로 꼽혔다.

담양(가맹점 14곳), 곡성(3곳), 함평(5곳), 진도(2곳), 신안(1곳) 등은 두 달 간 공공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전혀 없었고, 구례에서는 18개 업체가 가맹점으로 등록했지만 두 달 간 한 건의 주문만 들어왔다.

전남도가 가맹점 유치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공공배달앱을 깔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더 많

은 공을 들여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배달앱 이용자가 민간배달앱으로 주문한 상품을 받아볼 때 공공배달앱 장점을 담은 홍보팸플릿을 함께 끼워주며, 낮은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는 1대1 방식의 마케팅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 윤상현 부장은 “공공배달앱을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노출시키는 홍보 전략과 함께 배달앱 이용이 많은 젊은층을 타겟으로 하는 학교 앞 홍보 마케팅과 할인 혜택 프로모션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에는 공공배달앱 홍보 예산을 올해보다 더 많이 확보해 소비자들의 공공배달앱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주력하면서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이용자의 착한 소비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 공공배달앱은 민간업체(주먹개비)에서 앱을 개발·운영하고, 가맹점은 가입비와 광고비 없이 1.5%의 저렴한 중개수수료만 부담한다. 앱 이용 소비자는 쿠폰, 이벤트 등 할인 혜택을 받으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소비에 동참할 수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내년까지 챔스필드 주변 악취 정비

#### 37년간 민원...광주시, TF팀 운영 차단막·저감 시설 설치키로

광주시가 4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기아챔피언스필드 주변 신안교 악취 정비에 집중하고 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3년 12월까지 예산 11억원을 투입해 신안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악취 정비공사를 마무리한다.

신안교 악취의 주범은 하수시설이다. 신안교 하부에는 1985년부터 용방천과 서방천

에서 이송되는 하수를 자집해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하수시설이 외부로 노출돼 심각한 악취를 유발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악취 주요 원인인 시설을 교량 하부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신안교 하부가 단단한 바위인 탓에 교량 균열 등의 이유로 중단됐다.

광주시는 하수악취를 담당하는 시 수질개선과를 중심으로 신안교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다. 신안교 일대 악취농도 조사와 분석을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고, 신안교 지점에서 황화수소 농도가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다양한 사례와 아이디어를 연구한 끝에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교량 안쪽으로 이동하는 방법 대신 악취 밀폐를 위한 독립 구조물과 차단막을 설치하고 밀폐된 악취의 탈취를 위해 별도의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찾아냈다.

광주시는 악취 정비 대안에 대한 효과 및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지역대학 교수, 용역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고, 신안교 주변 악취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송용수 광주시 기후환경국장장은 “그동안 해결책을 찾지 못해 장기간 방치된 하수 악취 민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챔피언스필드 주변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연계해 시민들이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하천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시민권익위 새 출발

#### 광주시, 신규 위원 23명 위촉

광주시가 민선8기 시민권익위원회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새롭게 출발한다.

광주시는 5일 오후 민선 8기 첫 회의인 시민권익위원회 제37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임기 만료 등에 따른 신규 위원 23명을 위촉했다. 특히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당연직을 축소하고 신규 위촉직 위원을 확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8기 시민 소통 관련 주요 추진사항인 시민광장 광주 온(on)과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시민단체 현황, ‘듣는다 우체통’ 정책 제안 175건 대한 계획, 신규 위촉직 분과위원 구성안 등이 논의됐다.

또 그 동안 공석이었던 시민권익위원장으로 김양현 전남대학교 교수를 선출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들과 소통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함께 하겠다”며 “시민 정책 제안이나 시민 긴급 불편사항에 대해 의견을 듣고 현장 소통과 행정 협업체계를 구축해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맹고객 확보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MG골프클럽					
구분	이용 기간	정상 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정기 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문의 (영업지원팀)  
 \* 락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2만원 할인)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

## 사옥 임대 문의

### (영업지원팀)

## 5층 MG문화센터

# 회원 大모집

요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상시 운영 중

**MG금남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07-7(대인동)

**☎ 062-223-8007**